제5강 아우구스티누스 : 시간의 역설에서 시간 의식으로 I

(1교시)

1.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시간 관련의 네 차원 : 영원, 영겁(유구), 시간, 무시간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저 『고백록』(최민순 역, 바오로딸, 2005년 19쇄)에 기록된 글은 일종의 신을 향한 장엄한 기도문입니다. 글의 그러한 성격에 걸맞게 한국어 번역을 맡은 최민순 선생님의 어투 역시 극존칭의 경어체로 되어 있어 맛을 더합니다. 저로서는 이 책에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합격을 해 놓고서 입학을 하기 전 친구가 졸업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 달라고 한 책이 이 책이었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 그것을 일독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통상적인 인생의 길을 벗어나 아예 성직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러한 마음을 힘껏 다져진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제가 읽었던 국역본 『고백록』(최귀동 역, 보경출판사, 1974)은 완역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원전은 13권까지 되어 있는데, 10권까지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철학 공부를 좀 하고 보니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 내용이 『고백록』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제가 읽은 『고백록』에는 시간에 관한 것이 없었던 것이 분명했는데 묘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미완역이 된 데에는 11권에서 13권이 그의 생활 기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역본에서부터 그렇게 누락되어 온 모양입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을 본격적으로 탐구할 기회가 없었고 몇몇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만 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백컨대 이번 강의를 기회로 위 새 번역본을 사서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신을 저버린 지 20년이 지난 지금 '경건하기 이를 데 없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철하면서도 절절한 신심의 고백을 듣노라니 왠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 멀리서부터 안타까운 손짓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일 뿐 존재 깊숙한 곳에서부터 떨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을 접할 때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원이라 일컬어지는 신적인 시간과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여, 영원이 당신 것이어늘 내 말씀드리는 바를 모르실 리 있으시리까? 시간 안에 되는 일을 시간 안에서 보실 리 있으리까?"(311쪽)

시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맨 먼저 하는 이야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신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이미 신이 아실 거라는 것이고, 그때 자신이 하는 말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자신의 그 모든 말을 미리 알고 있을 신의 인식은 시간 밖 즉 영원 속에서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과 시간의 구별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신적인 영원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태초에 있었던 신의 첫 번째 창조 행위 즉 "빛이 있으라!"라는 신의 말하기에 관련하여 골똘히 진행됩니다.

www.artnstudy.com

“그러기 말씀하시매 모든 것이 생겨났고, 또 이것은 당신 말씀님으로 하신 것이니이다. / 하오면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이까? 구름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마태, 3장 17절) 하실 때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오니까. / 그 소리는 한 번 나고 지나가버렸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나이다. (…) 그런 만큼 그 소리를 낸 것은 피조물의 진동이며 당신의 영원하신 뜻에 좇았던 시간적인 것이었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 이러므로 만약에 당신께서 지나가는 말소리로 하늘과 땅이 되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면 천지 이전에 벌써 어느 창조된 물체가 있어서 그의 시간적 운동으로 그 목소리가 시간적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 천주이신 당신 곁에 계시는 천주님, 그 ‘말씀’을 알아들으라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시오니 이 ‘말씀’이야말로 영원히 말하여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항상 말하여지나이다. 모든 것이 말하여진다 하여 말하여지던 것이 끊어졌다가 다른 말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오라, 모든 것이 동시에 영원하다는 것이오니 그렇지 않다면 시간과 변화가 있게 되는지라, 참다운 영원성도 참다운 불멸성도 아닐 것이옵니다.”(316-318쪽)

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창조 이전에 즉 창조된 것이 아직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주인 신이 창조를 위해 말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는 데서 시간적인 것이 일어나는 모순을 연출하는 것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말과 시간의 운명적인 결합을 넘어선 신적인 말하기를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창조 이전에 창조를 위해 있었던 신적인 말하기는 바로 모든 것이 동시에 말해지는 방식의 말하기라는 것이지요. 선형적으로 주욱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것이 말해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 동시가 시간적인 지속 중의 어느 한 순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동일한 동시라는 것이고요. 니체에서 이야기되던 한 순간에 응축되는 영원회귀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니체의 영원회귀에 관한 시간론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초월의 신적인 시간을 내재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 창조를 인정치 않는 니체로서는 우주 창조 이전의 영원성을 ‘피조되지 않은 피조물의 세계’로 끌어내린 것이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2교시)

우주 창조에 관련해 아우구스티누스를 괴롭힌 또 하나의 문제는 ‘창조하기 전에 신이 과연 무엇을 했나?’ 하는 것입니다.

“낡은 사상에 젖어 있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느님이 무엇을 하고 있더냐?’고 합니다. 저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하면서 한가로이 지냈다면 항상 그래야 하고, 처음 그대로 아예 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을 것 아니냐? 만약에 창조를 하기 위하여 새로운 뜻을 세웠다면 이는 곧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은 이전에 비겨 하느님 안에 그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이요, 이렇다면 전에 없던 뜻이 새로 세워지는 만큼 참다

www.artnstudy.com

운 영원성이 어떻게 있다 하겠느냐, 하느님의 의지는 피조물이 아닐뿐더러, 피조물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니 창조자의 뜻이 앞서 있지 않는 한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란 그의 본체에 속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 먼저 존재하지 않던 무엇이 하느님의 본체 안에 일어났다면 그의 본체가 영원하다 이르는 말이 타당치 않을 것이니, 피조물을 만들고도 하느님의 뜻이 영원하다면 어찌하여 피조물 역시 영원하다 못하겠느냐?' /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은 아직 당신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 허나 이미 된 일과 될 일들의 어름에서 그들 마음이 퍼득거릴 뿐, 헛된 노릇인 것입니다. (…) 시간이 길다 함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많은 운동의 흐름이 길다 함이지, 영원에 있어선 흘러가는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현재인 것임을 알 것입니다."(320-321쪽)

이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그러나 대단히 논리적인 명철함이 넘치는 무리들의 이야기는 모르긴 해도 아우구스티누스 스스로도 생각함직 하기에 그 자신도 아주 그럴 듯한 이야기로 여겼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일단 모두가 현재인 영원을 지적해 놓고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제 대답하리이다. '천지를 배포하시기 전엔 하느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는 자에게 대답하오리다. 하오나 문제의 초점을 농으로 흐려버리면서 '깊은 것을 캐내려는 자들을 위하야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대답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오이다. (…) 하느님이 천지를 배포하기시기 이전엔 딴 무엇을 아니하셨다는 것을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거창한 일을 하시기 전엔 영겁을 그냥 지내신 줄로 안다면 그 거짓 앎에서 깨어나 사리를 분별케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아무리 장구한 시간이기로 당신이 짓고 마련하셨거늘 당신께서 아니 만드신 영겁이 어찌 흐를 수 있으오리까? 당신이 마련치 아니하신 시간이 있기라도 하단 말이니이까? 본디 없었던 것이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이오니까? (…) 당신께서 시간을 내셨느니 만큼 영겁마저 당신이 내시기 이전에 흐를 수 없던 것입니다."(321-322쪽)

우주를 창조하기 전 신이 그냥 지냈으리라 잘못 생각하는 데서 성립할 법한 것으로 영겁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영겁이라 번역되는 라틴어 원문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영원과 구분해서 쓰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고백록』 12권에 가면 신처럼 영원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다함이 없이 신에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변천도 겪지 않는 것이 있고, 아무런 꼴(형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변모를 겪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하늘의 하늘'로서 신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천사들의 세계고, 후자는 "땅은 보이지 않고 틀이 잡히지 않고 어둠이 심연 위에 있었다."라고 할 때의 어둠의 심연,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풀이하자면 순수 질료와 같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운동의 변화 없이는 결코 시간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351-352쪽 참조)

여기에서 신의 영원과 다른 것으로 말하는 영겁은 12권에서 말하는 시간의 변천을 겪지 않으면서 지속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아예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인데 반해, 영겁은 시작은 있으되 끝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영겁은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는 상태로 순수하게 연속되는 것이라 정의되고, 영원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뿐더러 연속이니 지속이니 하는 것조차 아예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됩

www.artnstudy.com

니다. 소광희 선생님의 책을 보면, 이 영겁을 유구라고 번역하면서 그 원어가 'aevum'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원어는 'aeternitas'라고 적어 놓았습니다.(소광희, 282쪽 참조)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일자의 영원성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영원인가요, 아니면 영겁인가요?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일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영원에 해당되지만,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영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일자의 영원성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신의 영원성과 하늘의 하늘이 갖는 영겁의 중간쯤 된다 하겠습니다. 시간 관련의 본질에서 보면, 영겁에 더 가깝다 할 것입니다. 시작이 없는 영겁인 셈입니다.

아무튼 일단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원, 영겁(유구),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관련된 세 가지 차원을 말하는 셈입니다. 이중에서 사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영원이나 영겁이 아닙니다. 영원이나 영겁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에 빗대어서만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유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사실이지 우리는 의미 있게 그 자체로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절대성이나 무한성과 같은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거쳐 온 시간의 경과를 시작이 없는 과거와 함께 생각하면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쳐 갈 시간의 경과를 끝이 없는 미래와 함께 생각하면 그 역시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합친 것도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상대적인 것에 대해 상대적입니다. 무한한 것은 무한하지 않은 것을 경계로 갖기 때문에 개념적인 논리로만 보면 그 자체 무한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갖는다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www.artnstudy.com